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의 필요성

칼-디터 호프만

정치학 박사, 바이에른(Bayern) 소재 가톨릭 아이히슈타트-잉골슈타트 대학
(Universidad Católica de Eichstaett-Ingolstadt)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교수·책임자

원제와 출처: Karl-Dieter Hoffmann, “Pobreza y desigualdad: la necesidad de un enfoque multidimensional”, *Nueva Sociedad*, No. 257, julio-agosto de 2015, pp 77-84.

핵심어: 지니계수, 사회발전, 불평등, 중남미, 라틴아메리카

지난 25년 동안 라틴아메리카는 사회발전에서 유의미한 후퇴와 진전을 차례로 경험하였다. 2002년 빈곤층 인구가 2억2천5백만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전체 인구의 43.9%를 차지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빈곤층의 비율은 최저수준인 28.2%(극빈곤층 11.3% 포함)로 떨어졌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멕시코와 중미보다 남미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루과이의 빈곤율은 미국보다도 낮아졌다.¹⁾ 그러나 경제성장의 둔화와 함께 2013년과 2014년 빈곤지수의 개선도 주

1) 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CEPAL), *Panorama social de América Latina 2014*, CEPAL, Santiago de Chile, 2015, pp. 15-17.

춤했다.

전문가들은 빈곤의 뚜렷한 감소와 함께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조의 고질병인 세계 최악의 불평등에서도 낙관적인 변화를 발견했다. 21세기 초, 특히 2003년 이래로 사회적 불평등의 기본 지표인 지니계수²⁾가 라틴아메리카 국가 대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감소세를 보였고, 2012년에 이르면 약 4% 포인트 하락했다.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적어도 6% 포인트의 지니계수 하락을 기록하였으며,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 단 두 국가만이 지니계수 상승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는 사회 양극화가 가장 극심한 지역으로 자리를 굳혔다.³⁾

라틴아메리카는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감소에 성공했다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주요 연구 기관(세계은행과 OECD 포함)의 보고서와 다수의 사회학 및 경제학 분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⁴⁾ 그런데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통계분석을 통해 기정사실화한 결과도 비판적 검토는 피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빈곤 문제에 대한 자료와 해석이 사회 현실을 감추고 있지만, 양극화와 관련해서 현재의 통계 분석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이 감소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상류층이나 최상류층보다 하류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경제성장은 어떠한 특성을 보여야 하는가?

2)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계산하는데, 0(분포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과 1(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상황으로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가져가는 경우 나타나는 절대적 불평등 상태)사이의 값으로 표시된다. 지니계수가 1에 근접할수록 더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2013년 독일의 지니계수는 0.31이었고, OECD 가입국은 0.25(아이슬란드)와 0.50(칠레) 사이에 있다.

3) CEPAL, *Pactos para la igualdad. Hacia un futuro sostenible*. 2014. Trigésimo quinto periodo de sesiones de la CEPAL, CEPAL, Santiago de Chile, 2014, pp. 74-76.

4) “Good Tidings from the South: Less Poor, and Less Unequal”, *The Economist*, 3/12/2011.

I. 빈곤 증후군. 소득 증가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글은 빈곤이 감소했다는 주장 전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빈곤 감소의 정도를 객관화해보고자 한다.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정의하는 여러 지표를 고려하면, 소득만으로 구체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시설, 주거상태, 영양상태, 에너지(전기와 요리용 가스) 확보, 학교 접근성, 교육의 질, 사회보장(질병보험, 퇴직금, 연금 등) 확충 등의 매개변수를 분석해야 한다. 이 중 적어도 두 가지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빈곤층으로 분류한다면 기존의 빈곤 지수는 상당히 올라간다. 예를 들어, 가족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011년 페루에서는 37.4%의 아동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9.3%는 극빈층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다차원적 접근에 의하면, 그 수치가 각각 62.6%, 30.9%로 증가한다. 볼리비아에서 다차원적 분석방법을 적용하면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아동 빈곤율이 20% 포인트나 악화하여 51.1%로 상승한다. 반대로 브라질에서는 두 가지 측정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소득만 고려해도 이미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는 나라에서는(예를 들면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다차원적 접근방식을 적용하면 그나마 긍정적인 수치조차 일부는 허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⁵⁾ 어쨌든 통계 분석을 객관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2002년부터 라틴 아메리카가 달성한 빈곤의 감소는 여전히 경이롭다. 빈곤의 감소는 경제 호황과 이로 인한 고용 확대 때문만이 아니라, 조건부 현금지급 같은 혁신적 제도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눈에 띄게 상승시킨 덕분이다.

5) CEPAL, *Panorama social de América Latina 2013*, CEPAL, Santiago de Chile, 2014, pp. 19-27.

II. 사회적 불평등의 실제 규모에 대해 눈을 감다

기존의 대다수 연구는 라틴아메리카라는 특정한 사회구조를 염두에 두기는 하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엄청난 차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보통 소득 피라미드나 소득 구간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하여 5분위나 10분위의 최상위 평균소득과 최하위 평균소득을 비교한다.⁶⁾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 종종 그러하듯이 하위 20%가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다면, 최상위 5분위의 평균 소득이 최하위 5분위의 25~30배라는 통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10분위로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예를 들어, 2001년 멕시코에서는 45대 1이었다). 소득 상위 10%의 인구는 브라질이 2천만 명, 멕시코가 1천만 명, 콜롬비아가 4백만 명 정도이다. 이렇게 넓은 통계 구간을 소득과 삶의 질이 동일한 사회집단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사회적 피라미드의 최상위 계층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것은 21세기 초 브라질 가정의 90%가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실질적인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라미드의 정점, 즉 하위 90% 위에 군림하고 있는 최상위 계층의 소득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소득분배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거나 자산 가치(현 통계조사에서는 자본소득으로 간주한다)를 과소평가한다면 사회 양극화의 실상을 털끝만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유층에서 자본 축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통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 기껏해야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진다. 부의 집중은 소득보다 자산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상위층의 부는 2011

6) 5분위 배율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소득이 높은 가구를 일렬로 배열하여 5개의 구간으로 나눈 후, 최상위 구간(상위20%)의 소득을 최하위 구간(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10분위 배율도 산출방식은 5분위 배율과 동일하다. 단, 구간이 10개이고, 비교대상이 최상위 10%와 최하위 10%라는 점이 다르다 - 옮긴이.

년 수치인 47%를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

Ⅲ. 사회적 불평등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다

소득분배 분석이 부가 집중되는 실제 과정을 온전히 다루지 못한다는 여러 증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상속 관계의 은폐는 중대한 문제다. 이런 문제는 지니계수 산출 방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지니계수가 안고 있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계수를 무턱대고 다루는 경향이 있다. 지니계수의 상승만으로는 이런 변화가 주로 상위 5분위 소득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상위 10% 또는 상위 1%의 소득 변화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니계수가 토대로 삼고 있는 로렌츠 곡선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지니계수는 상대적 불평등만 나타낼 뿐, 절대적 불평등은 나타내지 못한다. 최하위 10분위의 평균 소득이 150달러이고 최상위 10분위의 평균 소득이 1만 달러라면, 중간 구간의 어떤 10분위에서 소득이 10% 증가해도 지니계수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증가하고(예의 경우 9,850달러 차이가 난다),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져도 지니계수는 변화가 없다. 10분위이나 5분위에서 각 구간의 가족소득에서 명목 소득(예를 들어, 50달러에 해당하는 소득)이 똑같이 증가하는 경우 절대적 불평등은 변하지 않는데, 이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2003년부터 10분위 하위 2개 구간의 연평균 소득이 상위 2개 구간 소득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지만(10분위 1구간과 2구간: 10%, 9구간: 4.6%, 10구간: 3.5%)⁷⁾ 소득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이는 실제

7) OECD, *Economic Surveys Brazil*, OCDE, Paris, 2013, pp. 80-81.

로 양쪽 모두 빈곤은 감소했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지니계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기초자료는 가구 설문조사를 통해 얻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상위층이 틀림없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입을 실제보다 축소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10분위에서 최상위 구간은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구간으로 여기는 반면, 나머지는 구간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고정적인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수입 축소 문제와 별도로 통계 샘플을 통해 실제 상황을 반영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상위 구간에서 발생하는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충자료로 가구 설문조사를 보완해야 한다. 비록 그런 자료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일이 태반이지만, 세금징수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조세 포탈을 생각하면 자료의 신뢰성은 보장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자료조차 지니계수에 기초한 분석을 전폭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좋은 사례는 콜롬비아와 우루과이다. 과세 대상의 소득에 대한 2010년 자료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는 상위 1%가 총소득의 20.4%를 차지한 반면, 상위 0.1%는 7.37%를, 상위 0.01%는 2.64%를 차지했다.⁸⁾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비교적 낮은 우루과이에서는 상위 10%가 2011년 총소득의 45.2%를 차지했고, 상위 1%는 14.1%를, 상위 0.1%는 4.8%를 차지했다. 2004년까지의 정보만 공개하는 아르헨티나 경우도 상위 1%에 16.75%의 소득이 집중되어 있다.⁹⁾

의문의 여지 없이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 다른 국가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8) Facundo Alvaredo y Juliana Londoño, “High Incomes and Personal Taxation in a Developing Economy: Colombia 1993-2010”, Working Paper No. 12, Tulane University, marzo de 2013.

9) F. Alvaredo, “A No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op Income Shares and the Gini Coefficient”, *Economic Letters*, No. 110, 2011, pp. 274-277.

추측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상위 10% 내의 불평등 관계가 나머지 90% 내의 불평등 관계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상위 10% 중에서 최하위 1%의 평균 소득은 최상위 0.1%의 소득보다는 하위 10%의 평균 소득이나 빈곤선에 더 가깝다.

지니계수의 하락을 근거로 사회적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은 저소득층에게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과대평가한 것이 분명하다. 동시에 소득 피라미드의 상층부에서 벌어지는 실질적 변화의 많은 부분을 간과한 것이다. 과세 자료와 최상위 1%의 소득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2010년 콜롬비아의 지니계수는 0.554에서 0.587로 상승한다. 아르헨티나 역시 지니계수가 7% 포인트가량 상승하여 2004년에 0.560에 이르게 된다. 최상위층으로 부가 집중되면서 사회 계층화가 심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정 작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더욱 철저한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이미 일반화된 빈곤과 한창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사이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함을 보여준다. 빈곤율의 감소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박수경 옮김

